

‘망상·환청’ 시달리다 모텔 방화 30대

투숙객 3명 사망·24명 부상·모텔 수리비 11억 심신미약 인정 형량 감경했지만 중형 선고 재판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마땅”

환청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신이 머물던 모텔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하고 24명을 다치게 한 30대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10일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자신이 머물던 모텔 3층 객실에서 라이터를 이용,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불로 투숙객 3명이 숨지고, 24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모텔 건물 수리비만 11억 원이 넘는 재산피해도 났다.

김씨는 같은 달 21일 오후 6시 7분께 북구 용봉동 한 모텔에 투숙했다. 김씨는 ‘옆방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해킹하는 것 같다. 나를 공격하려고 4명이 와 있는 것 같다’며 112에 신고했다.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로부터 ‘신고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은 뒤 대금을 환불받고 해당 모텔을 나왔다.

이후 김씨는 두암동 모텔로 장소를 옮겼으며, 망상과 환청에 사로잡혀 베개 속과 화장지를 이용해 객실에 불을 질렀다.

김씨는 ‘누군가의 공격과 감시를 받는다’라는 망상에 시달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 직전 망상·환청·판단력 손상 등의 정신질환 증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명시되지 않는 조현병 스펙트럼과 기타 정신병적 장애를 겪는 사람으로,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망상·환청 등 정신질환의 증상이 나타난 때는 범행 전날이 처음 이었던 것



22일 오전 5시 45분께 광주 북구 두암동 5층 규모 한 모텔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난 가운데 소방당국 등이 화재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다.

로 보인다. 범행 전 자신의 정신질환을 자각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진료를 받을 시간적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김씨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3명은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으며, 목숨을 구한 피해자들도 유독가스 흡입이나 탈출 과정에서 생긴 부상으로 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

질과 범행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평소 예측하기 어려웠던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

장애인 머리에 끈 올리고 “어때요?”…1심 유죄

장애인의 머리에 쇼팽백 끈을 올리며 장난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에 대해 1심 법원이 확대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모(37)씨에게 지난 6월 11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한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지적장애 3급인 A(36)씨의 머리에 쇼팽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장난을 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여러분 A씨 어때요’라고 말하며 웃음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의 사진을 찍고 A씨로 하여금 스스로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씨는 “A씨 머리에 끈 다발을 올린 적은 없으며 눈을 찌르고 우는 척하도록 했으나 원래 종종 하던 행동으로 서로 웃자고 한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유 부장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라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당시 녹음자료 등을 들어볼 때 피고인이 (머리에) 끈을 놓은 게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나이지리아 국적 40대 원룸서 숨진 채 발견

광주의 한 원룸에서 나이지리아 국적의 40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 20분께 광산구 비아동 한 원룸 2층 A(41)씨 집에서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지인과 집주인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나이지리아 국적으로 건설현장 등에서 일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숨지기 전부터 연락이 되지 않아 지인 등이 집을 찾았으며 발견당시 A씨는 침대에 누운 채 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전도구 등이 켜져있고 특별한 의상이 없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포의 강남 밤거리…술먹고 여성들 상대 주먹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새벽시간대 별다른 이유도 없이 여성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일명 ‘물지마 폭행’인지 여부 등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0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역 부근 대로변에서 여성 B씨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던 상태에서 이갈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주하던 A씨는 다른 여성 C씨의 얼굴을 한 차례 더 때린 혐의도 있다. A씨는 주변의 다른 사람들 중에서 여성 C씨만 골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주먹을 휘두를 당시 술에 취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량용 승강기 1층 바닥서 20대 숨진 채 발견

부산의 한 건물 내 차량용 승강기 1층 바닥에서 20대 노래방 종업원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4분께 기장군의 한 건물 4층 노래방에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나간 20대 종업원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장 주변 수색과 CCTV영상 분석 등을 통해 오전 2시 15분께 차량용 승강기 1층 바닥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승객용 승강기가 고장나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하다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방조개기 3명 사망...‘천호동 성매매 화재’ 운영자 실형

1심 “화재 진화 위한 설비 갖춰야했지만 안 갖춰”

지난 2018년 서울 천호동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 실제 운영자로 알려진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 2015년 10월~2018년 12월까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을 홀, 대기실, 주방 등을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한 업소에서는 2018년 12월 22일 오전 11시께 불이 나 16분 만에 진화됐다. 이 화재로 2층에서 머물던 여성 6명 중 3명 숨졌고, 20대 A씨가 사

고 직후 숨졌고, 최모(46)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여기에 김모(27)씨까지 총 3명이 숨졌다. 나머지 종업원 3명도 연기를 들이마셔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업소가 위치한 지역은 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은 것으로 예상돼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된 곳이었다.

이에 서울 강동소방서는 해당 지역 내 건물관계인에게 ‘소방·방화시설을 상시 정상작동 상태로 유지하고, 전기 가스 등 화기를 안전하게 취급하며 출입문 외부 잠금장치 및 방범 설치를 금한다’는 등의 화재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공고했다.

하지만 A씨의 업소는 1968년 건축된 노후 건물로 화재에 대비한 스프링클러 등 방화시설이 설치돼있지 않았고, 매년 연탄난로를 설치했다가 철거한 것으로 알

려졌다. 특히 종업원들의 성매매 및 숙식이 이루어지는 건물 2층은 일명 ‘방조개기’를 통해 6개의 방으로 이루어진 좁고 폐쇄된 구조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박 부장판사는 “A씨는 업소의 운영자로서 화재발생요인을 수시로 점검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화재발생 위험을 최대한 감소시켜야 했다”며 “그런데 A씨는 1층에 연탄난로를 설치하고 인근에 빨래를 널게 방치해 화재 발생 위험을 증대시켰다”고 했다.

이어 “종업원들이 일을 마치고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진화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춰야했지만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발견된 변사자는 신원을 특정 할 소지품이 발견되지 않고 고도부패로 백골화가 많이 진행돼 지문 감식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실종 신고자와 대조하는 등 신원파악과 사고경위에 대해 조사를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신봉우 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